

딥노이드, 스마트AI 의료클라우드 사업 위해 이노그리드와 MOU 체결

- ▶ 의료 AI 플랫폼에 클라우드 결합, 스마트 의료산업 선도할 것
- ▶ 첨단 ICT기술로 인구고령화,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문제 해결될 것

<2021-11-03> 의료 AI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315640, 대표이사 최우식)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이노그리드와 의료클라우드 사업 'SAiCL(Smart Ai Clinic)'의 공동 수행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솔루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 공공 SI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위드코로나에 대응해 첨단 ICT기술을 의료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과 더 나아가 의료 AI 플랫폼의 고도화를 골자로 한다.

딥노이드의 ▲의료AI 솔루션 딥파이(DEEP:AI) ▲노코딩 기반 의료 AI연구개발 툴 딥파이(DEEP:PHI) ▲의료AI 마켓플레이스 딥스토어(DEEP:STORE)가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기술력과 결합하여 기존 의료AI 플랫폼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드코로나 전환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위한 AI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과 의료 AI 플랫폼을 융합한 데이터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확장도 준비하고 있다.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한 기존 의료시스템의 한계는 의료현장에 첨단 ICT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의료산업의 발전이 가속화 된다면,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등의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